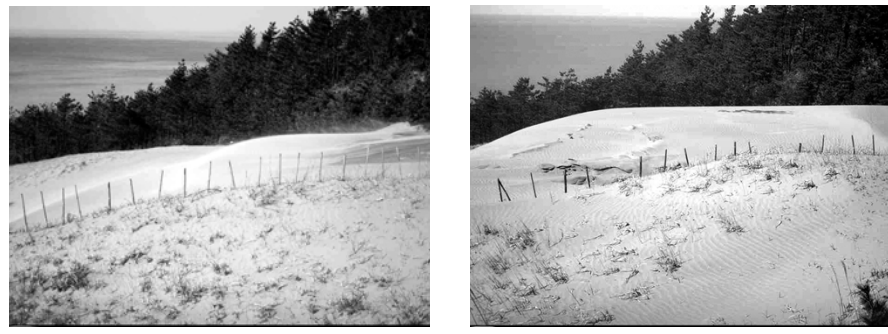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 출입금지 5년 추가 연장

동양 최대 규모 풍성사구
2006·2010년 이어 세번째
다도해사무소 “안전복원 떨어”

‘동양 최대’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鳳成砂丘) 출입금지 기간이 5년 연장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15일 끝나는 풍성사구 출입금지 기간을 2020년 7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5년씩에 이어 3번째다.

서부사무소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자원으로 풍성사구를 둘러싼 주



지난 2013년 3월(왼쪽)과 올 3월에 촬영한 우이도 풍성사구 정상부 모습.

변 환경의 변화(식생, 기상, 인공구조물, 인위적인 행위 등)로 사구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우이도 풍성사구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모래이동 방해 요인 제거 및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을 2011

년도부터 시행해 사구 정상부에 모래가 쌓이는 효과를 얻었다”면서 “그러나 풍성사구의 원형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막고자 출입통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퇴적돼 만들어진 우이도 사구는 해발 고도 100m, 폭(폭폭) 20m, 경사 33도 규모의 동양 최대 풍성사구다. 사구 일원에는 사구식물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안 모래와 지하수의 저장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탐방객 출입으로 모래 언덕이 훼손되고 일부 사구 식물 또한 사라지는 등 원형을 잃어가면서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도해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우이도 풍성사구가 원형을 되찾을 때까지 복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복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이도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풍성사구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광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관수)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영광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학생 18명이 ‘나의 꿈’을 주제로 한국말로 발표한 후 부모 나라의 말로 다시 표현했다.

이번 대회는 학부모와 교사도 함께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대회에 참가한 배정환(불광 초등학교

교) 학생은 “한국어와 엄마 나라의 필리핀 말을 다 할 수 있는 특기를 자랑할 수 있어 기뻐다”며 “외교관이 되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두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관수 교육장은 “다문화 인재들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교육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지역사회 이끌어 갈 동량으로 키주세요”

김철주 무안군수 무안고등학교 특별강연

김철주 무안군수(사진)는 최근 무안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무안군 미래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김 군수는 무안지역의 자연환경과 잠재 여건을 바탕으로 한 관광, 농·어업, 교육, 지역인프라 구축 분야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군 역점과제인 ‘찾아오는 교육도시 건설’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학생들에게 “애항심과 모교



에 대한 자부심,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임동현기자 idh@

영광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25일까지 펜화 전시회

누구나 쓰고 있는 볼펜으로 그린 펜화 작품이 영광에서 전시돼 화제다.

지역 작가인 박성호(사진)씨와 영광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영광 예술의 전당 전시관에서 ‘일상’ 기획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군민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속 필기도구인 볼펜으로 그린 펜화 4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영광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박성



호 작가의 지도 아래 틈틈이 펜화를 그려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한편 박성호 작가는 이탈리아 밀라노 ‘Ex-Ait’ 뉴아트갤러리 전속 작가이며, 광주 민족미술연합회 위원과 영광 민족미술연합회 지부장을 맡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신안 증도 우전해변서

24~26일 쟁퐁어축제

‘쟁퐁어’를 주제로 한 이색 축제가 신안에서 열린다.

신안군 증도면 주민들은 오는 24~26일 사흘간 증도면 우전해변에서 ‘신안 증도 우전 쟁퐁어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안군에서 열리는 쟁퐁어축제는 전국 최초의 축제이며, 연간 100만명이 찾는 ‘슬로시티’ 증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개막이 체험, 대나리(후리)체험, 맨손 쟁퐁어 잡기, 쟁퐁어 낚시 등 각종 체험행사와 락 페스티벌, 최고의 갯벌 미인 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남해안의 갯벌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쟁퐁어는 대부분 지역에서 남획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자원량이 줄고 있으나, 증도 주민들의 보전 노력으로 국내 최대의 서식지(2004년 국립수산물자원조사자료)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와 전국 최초의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증도는 국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갯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해바라기 활짝 핀 신안 비금도

최근 신안군 비금도 들녘에 황금빛 해바라기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비금해바라기연구회(회장 김윤관)는 비금 관내 4ha에 해바라기를 재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씨앗을 판매해 농가소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신안군 제공>

최근 신안군 비금도 들녘에 황금빛 해바라기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비금해바라기연구회(회장 김윤관)는 비금 관내 4ha에 해바라기를 재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씨앗을 판매해 농가소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신안군 제공>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내달 16일까지 운영

주차장·샤워실 등 편의시설 대폭 확장 개장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지난 11일 개장 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운영된다.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한 이 물놀이장은 매년 4~5만 명이 찾으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수질이 깨끗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개의 정수시설이 운영기간 내내 하루 3000t의 물을 끊임없이 순환식으로 정화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안전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한 점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물놀이장과 달리 조리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고(조리는 불가능) 가까운 읍내 음식점에서 통닭, 피자 등도 시켜

먹을 수 있어 가족단위 피서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매년 늘어나는 피서객을 위해 올해에는 그늘막 휴게공간, 주차장, 라커룸, 샤워실, 화장실 등 휴식시설과 편의시설을 크게 확장했다.

이용요금은 성인 8000원, 소인 6000원, 워터슬라이드 1회 500원이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엑스포공원사업소 061-320-2207) /함평=황윤희기자 hwang@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50만주(현재 목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4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주차거주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륙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은행, 보험, 증권	1400㎡
8층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